

Ungson, G., R. Steers & S. H. Park, KOREAN ENTERPRISE: The Quest for Globalization

심 원 슐 *

지난 30년전 한국은 경제적으로 빈곤국가 수준이었으나 그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경제적 '기적'을 이룬 신흥공업국가로 불리우고 있다. 즉 현재 한국경제의 위상은 다음과 같은 수치로 잘 나타나고 있다: 무역규모로는 세계 14위, 조선, 철강, 가전제품, 메모리반도체, 퍼스날컴퓨터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의 위치, 세계 5위 자동차생산국, 미국의 6위 수출국, 1960년의 일인당 소득 \$100에서 1995년 \$10,000초과 등.

최근 미국의 경영 및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학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관료들과 경영자들도 한국경제와 기업경영에 현황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본 저서의 저자들은 이러한 미국내에서의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필을 결심하게 되었다.

미국내 경영대학의 학부과정과 경영대학원에서는 최근 국제경영학(또는 세계경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대학교에서는 국제경영학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경영학 과목 전반에 걸쳐 국제경영학 이론과 사례를 삽입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미국 경영대학(원)에서는 사례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사례도 풍부히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사회, 기업문화, 교역관행, 경영전략, 조직관리등에 대한 풍부한 사례가 개발되어 미국의 경영학도들은 일본의 경제 및 경영현상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를 하고있다. 저자들은 최근 필자와 가진 면담에서 본 저서를 집필하게 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국기업과 경제발전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으나, 막상 한국기업에 대해 지도하려고 하면 교재로 사용할 만한 자료와 사례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저서를 쓰기로 결심한 이유는 국제경영학 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경영자나 정책입안자들에게도 도움을 주

* 한양대학교 경성대학 경영학부

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¹⁾

Korean Enterprise의 저자 중 Gerardo Ungson교수는 현재 미국 University of Oregon 경영대학 석좌교수로 Richard Steers교수와 함께 한국에 관한 연구를 가장 많이한 미국 경영학 자중의 한사람이다. 두 저자는 본 저서외의 1988년 Chaebol: Korean Industrial Might, 1998년 Made in Korea를 출판하여 미국내외에서 한국기업과 경제 전문가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Steers교수는 전임 미국경영학회 회장(Academy of Management)을 역임하였고 Motivation분야 연구에서 중요한 학술적 업적을 남긴바 있다. Seung-Ho Park교수는 Rutgers 대학교 경영대학에 재직중인 한국인 교수로서 현재 미국경영학회(Academy of Management) 편집위원으로 경영전략분야의 연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The New Competitive Landscape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현황, 세계화를 통한 정치, 사회 및 경제 혁신 그리고 한국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7가지 주요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7가지 과제'는 제3장-제9장에 과제 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본 저서의 대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은 제1장을 탐독할 필요가 있다. 제2장, Building the Entrepreneurial Machine: A Look Back에서는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재벌기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삼성, 현대, LG 및 대우등 4대 재벌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기업과의 비교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제3장, Industrial Policy and the New Economic Covenant에는 기술, 자본, 천연자원이 빈약한 한국에서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정부의 산업정책의 목표와 실행 수단에 대해 언급하고있다. 그 중 외자 및 기술도입,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자본 및 기술축적을 위한 재벌기업 육성, 강력한 정부의 경제개발 드라이브 등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4장, Restructuring the Chaebols에는 경제성장에서의 재벌기업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설명하고, 현재 경제환경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 재벌의 독점적 시장행위, 과도한 중복투자 및 높은 부채비율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역할을 수정하기 위한 재벌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Developing Local Entrepreneurs에서는 재벌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의 중소기업이 지니고 있는 경쟁상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재벌기업의 폐해와 비효과적인 경영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재벌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을 통하여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재벌기업의 규모를 줄이고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산업에서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의 핵심인 혁신적 기술개발 및 창업가적 역량의 주요한 원천임이 강조되고 있다. '제6장, Competing on the New Technological Frontier'에서는 한국기업

1) "Korean Enterprise"에 집필 기획에 관한 Richard M. Steers와의 면담, 1994년 6월.

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과제인 기술습득과 개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장의 초반에는 기술력 부재의 상태에서 한국기업이 OEM, 턴키 베이스 사업, 기술자문, 라이선싱등을 통하여 기술력을 향상시켜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이러한 전략은 현재 외국기업의 심한 견제로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연구개발투자 증대, 해외현지투자 및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기술습득 및 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필요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예: G-7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제2장부터 제7장까지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제와 기업의 성장을 보다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분석에 무게를 둔 반면, 제8장과 제9장에서는 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별기업의 경영상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8장, Management and the New Confucianism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경영방법을 조직 구조, 상사-부하와의 관계, 연공서열위주, 노사관계, 의사 결정 과정, 리더십 스타일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경영방법은 급변하는 새로운 경영환경하에서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경영효과를 위하여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구식 경영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서구적인 경영방법'에는 권한위양, 참여적인 의사결정, 능력위주의 인력관리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사례로서 삼성, LG, 한화그룹등 6개 재벌의 혁신을 소개하고 있다. 제9장, Human Resources as a Strategic Asset에서는 한국기업에서의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력채용, 개발, 근무평정, 보상체계 및 운용과 상위직에 여성인력의 등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10장. Toward the Twenty-first Century Korean Enterprise'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는 긍정적 시나리오로 한국경제와 기업이 과거와 같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 개발을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할 것이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부정적 시나리오로 개방된 세계경제 환경에서 핵심역량을 갖추지 못한 한국기업은 경쟁력 제고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경제와 기업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 저서는 외국학자들의 시각에서 한국경제와 기업 성공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가치를 한국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첫째, 저자들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수행한 한국경제와 기업의 문제와 과제에 관한 분석이 IMF관리경제 체제하의 우리 경제에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저자들이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한국기업의 혁신방향에 대한 보다 확신을 갖게한다. 둘째, 본 저서는 제2장에서 부터 제9장에 걸쳐 한국경제와 기업의 문제점과 거시 및 미시적 차원에서 혁신방향을 통합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본 저서는 일반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세계화'의 의미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경영학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저자들은 궁극적으로 한국경제가 세계경

제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의 협력, 세계속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전문경영 체제 확립, 기술혁신, 기술협력 체계로의 편입등을 구체적인 세계화의 방향으로 지적하고 있다. 어느 저서의 경우에서 와 마찬가지로 본 저서에도 다소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떠한 사회 및 조직현상도 국가와 조직 특유의 문화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외국인 저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한국인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본 저서가 담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각종지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외국인 독자에는 의미가 클 수 있으나 한국의 독자에게는 다소 피상적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저서의 목적이 외국인 독자로 하여금 한국의 경제 및 경영현상을 이해하도록 하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자들은 그들의 목적인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